

NCS업무처리능력군이 진로결과기대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문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

성행남* · 조동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전문대학 학생의 NCS 업무처리능력군(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과 진로효능감 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함에 있다. 그리고 이 진로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실증분석하기 위함이다.

사회인지진로이론 및 자기효능감 관련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학생의 진로결과기대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영향요인으로 진로효능감 요인을 확인하였다. 둘째, 업무처리능력군 중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은 진로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능력군 중 기술능력은 진로효능감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 학생의 진로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학과 차원의 행정지원과 교수자의 상담 및 멘토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교과과목의 개설과 교수평가 지표 항목의 개발 등의 정책적 제안이 가능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이 진로효능감에 미치고 이는 다시 진로결과기대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기에 해당 능력과 관련된 비교과목의 개설 및 특화 및 특강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와 진행의 정책적 제안이 가능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진로결과기대, 진로준비행동, 진로효능감, 업무처리능력군(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논문접수일: 2019년 05월 14일 수정일: 2019년 07월 29일 게재확정일: 2019년 09월 10일

† 이 논문은 2019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강사(제1저자), haena@gnu.ac.kr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교신저자), dhcho@gntech.ac.kr

I. 서론

4차 산업혁명의 진행 및 가속화로 우리를 둘러싼 고용시장 및 직무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직업이나 직종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로 고용시장에서는 전공실무능력과 함께 기술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박윤희, 2018; 이창원, 2017). 근로자들의 세부적인 직무와 관계없이 모든 직무분야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하는데, 현대기업과 조직들은 이러한 직업기초능력을 갖춘 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추세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서용수·최승영, 2017; 이진욱·김진영, 2016).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의 직업기초능력을 대학교육에 적극 활용 할 것을 권장해왔다. NCS 시행 초기에는 4년제 대학에 비해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대학들이 NCS의 도입과 적용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기업들이 NCS 기반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4년제 대학들도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며 NCS의 도입과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윤덕원·우혜정·강봉준·김윤호, 2016).

NCS 직업기초능력은 직무수행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10개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직장적응능력군’과 ‘업무처리능력군’, ‘기초능력군’으로 구분된다(NCS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이러한 세 가지 능력군 중에서 본 연구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평가하는 ‘업무처

리능력군’에 특히 관심을 두고자 한다. 업무처리능력군은 ‘문제해결능력’과 ‘정보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의 총 5가지 하위 역량으로 구성되며, 개인이 맡은 업무 처리와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다(박윤희, 2018).

이러한 직업기초능력의 ‘업무처리능력군’과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특정 직무 혹은 특정 전공 등에 요구되는 역량과 이러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하여 의미 있는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이은화 외 공동연구, 2011; 김혜영, 2015; 최광열, 2017; 서용한·야부 토스하루, 2017; 임세영 외 공동연구, 2018; 김민정·박영민, 2018; 성행남·조동환, 2018, 안재영·이찬주, 2018; 장현철·이명화, 2019; 성행남·조동환, 2019).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총 5가지 역량 중에서 1~2개의 하위 역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업무처리능력군의 특정 측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5가지 역량이 전체적으로 창출해내는 다각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업무처리능력군에 대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이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 이러한 5가지 역량에 대한 종합적 이해 또는 평가는 현대 기업과 조직에 있어 인재들을 선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들이다(박윤희, 2018; 김정아,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업무처리능력이 실제로 고용 및 취업 관련 영역과 어떻게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는 성공적인 취업 준비, 대학과 정부 차원에서는 NCS 관련 교육 효과 및 재정 투입의 타당성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로(주초용 외 공동연구, 2018), 업무처리능력이 갖는 실질적인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취업난 상황에서 다양한 직업선택과 구직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조선일보, 2018; 중앙일보 2018).

본 연구에서는 NCS의 직업기초능력 중에서 업무처리능력군의 5개 하위능력이 진로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업무처리능력군이 성공적인 취업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업무처리능력의 영향력에 대한 실제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에서 업무처리능력 관련 다양한 전공 및 교양과정의 설계 및 운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효과적인 지표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과 가설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A지역 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정을 알고자 처치변인으로 직업기초능력 중 업무처리능력군(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을 상정하고, 준거변인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효능감과 진로결과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을 상정하고자 한다.

1. 직업기초능력과 업무처리능력군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NCS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2019년4월20일 접속). 즉, NCS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능력과 그를 평가하기 위한 시

스템적인 내용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산업현장 직무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결하는 고리, 즉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을 토대로 NCS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세환, 2015).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에는 열 개의 직업기초능력 각각을 하위능력과 세부요소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 열 개의 직업기초능력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직업윤리이다. 특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6)에서는 이 열 개의 직업기초능력을 기초능력군, 업무처리능력군, 직장적응능력군으로 세 개 군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기초능력군은 직무에 필요한 기본 직업능력을 위한 의사소통능력과 수리능력의 포함한다. 그리고 업무처리능력군은 문제해결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의 다섯가지 직업기초능력이 포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작업능력을 말하며, 끝으로 직장적응능력군은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 직업윤리가 포함되어 업무처리에 필요한 작업능력을 말한다. 이 중 업무처리능력군은 전공계열 공통능력으로 열 개의 직업기초능력 중 가장 많은 다섯 가지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업무처리능력군의 조직이해능력과 자원관리능력의 진단문항 개발 연구(임세영 외 공동연구, 2018)등이 진행 중이다.

먼저 문제해결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이고, 정보능력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의미있는 정보를 업무수행에 적절하도록 조직하고, 조직된 정보를 관리하며, 업무 수행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고, 이러

한 제 과정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기술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구, 장치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능력”이고, 자원관리능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간, 자본, 재료 및 시설, 인적자원 등의 자원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계획대로 업무 수행에 이를 할당하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이해능력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추세를 포함하여 조직의 체제와 경영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다(NCS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2019년 4월 20일 접속).

2. 사회인지진로이론

Hackett & Betz(1981)는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을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여성의 진로 선택 및 발달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태동 되었다.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은 Bandura(1977)이 행동과 환경, 개인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는 심리학 이론으로, 관찰학습과 자기효능감 등을 강조한다. 이 이론을 확장하여 Bandura(1985)는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라는 주요개념을 정립하였다. 먼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77; Bandura, 1985). 그리고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s)는 결과기대는 자신의 특정행동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보는 개인적 기대로(Bandura, 1986), 특정 행동을 수행한 결과들과 질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주관적 믿음(Lent, Brown & Hackett, 1994)을 의미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흥미발달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 등 세 가지 모형(Lent, Brown, Brenner, Chopra, Davis, Talleyrand & Suthakaran, 2001)으로 제시되며, 이 세 모형은 서로 맞물려 발달해간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결과기대는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의 근원, 자기효능감, 능력 및 과거의 수행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흥미에 직접적으로 목표, 학업적·직업적 만족 및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한다(박보경, 2009; 이명화, 2015).

전문대학생의 NCS기초능력군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성행남·조동환, 2018)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이 진로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 진로효능감은 진로결과기대와 전공흥미에 영향을 주어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 즉 직업기초능력(NCS)은 진로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Lent, Brown & Hackett(1994)의 사회인지진로이론과 상기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로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 관계에서 맥락적 선행 및 후행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a:* 문제해결능력은 진로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b:* 정보능력은 진로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c:* 기술능력은 진로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d:* 자원관리능력은 진로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e:* 조직이해능력은 진로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진로효능감은 진로결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인지나 정서의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김봉환·김계현, 1997). 김봉환·김계현(1997)은 올바르게 합리적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를 진로준비행동으로 정의하면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제경·김동일(2004)은 진로준비행동을 취업준비행동과 직업탐색행동의 개념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진로준비행동의 과정은 포괄적인 의미로 진로선택 및 준비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업준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했다. 취업준비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은 많은 부분이 유사하지만 취업준비행동이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인 것에 반해 진로준비행동은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진로의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이제경·김동일, 2004).

성행남과 조동환(2018)의 연구에서는 NCS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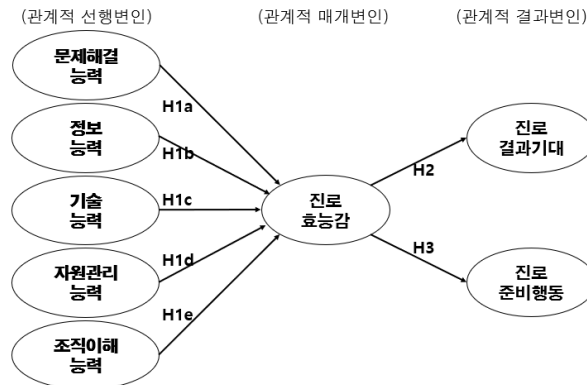
업기초능력은 진로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 그리고 전공흥미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의 선행변인임을 보고하였다. 특히 상기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효능감과 전공흥미의 성취변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성취변인으로 상정하고,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영향변인으로 상정하였다. 즉,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진로효능감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진로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모형과 방법

1. 연구모형

전문대학 학생의 업무처리능력군(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이 진로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 진로효능감이 진로결과기대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안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처치변인의 설문 항목은 NCS국가 직무능력표준에서 차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사용 하였다. 업무처리능력군의 5가지 능력인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그리고 조직이해능력은 각 3항목으로 구

성되었다. 그리고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차용한 진로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 역시 각 3항목으로 구성되고,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도 3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7점)’으로 7점 리커트타입 척도로 측정되었다(<표 1> 참고).

<표 1> 측정 항목

변인	문항	연구자
문제해결능력	주어진 문제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임세영 외 공동연구(2018) 김세환(2015)
정보능력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분석할 수 있다.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	
기술능력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의 원리 및 활용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원관리능력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자원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물적자원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조직이해능력	내가 속한 학과(조직)의 목적과 체제, 문화와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속한 학과(조직)의 목표와 방법을 이해하고,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진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알고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진로효능감	여러 가지 진로들이 나열되어 있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선호 및 희망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명화(2015) Lent, Brown & Hackett (1994)
진로결과기대	다른 진로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그 중에서 나은 진로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의 흥미와 능력을 안다면 좋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학점을 받으면 향후에 연봉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진로준비행동	관심 있는 직업군에 관해 상담기관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 관심 있는 직업군에 입문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 모임 활동이나 학원에 다니고 있다. 내가 설정한 취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다.	이계경·김동일 (2004) 김봉환·김계현 (1997)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문제해결능력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정보능력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의미 있는 정보를 적절하도록 조직하고, 조직된 정보를 관리하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고, 이러한 제 과정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술능력은 “도구, 장치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실제로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자원관리능력은 “자원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계획대로 업무 수행에 이를 할당하는 능력”이라고 조작적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이해능력은 “조직의 체제와 경영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매개변인인 진로효능감은 Bandura(1977, 1985)의 사회인지이론을 접목하여 “진로결정 과정에서 관련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로, 진로결과기대는 “진로와 관련된 적응적인 행동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믿음”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김계현(1997)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이 원하는 진로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IV. 실증분석과 연구결과

1. 자료수집과 기술통계

본 연구를 위해서 2018년 10월 22일부터 약 3주 동안 A지역의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에 부적절한 불성실 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실증분석에는 561부의 설문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유효한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2.0, 측정모형분석과 구조모형분석은 AMOS 22.0 사회과학용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조사분석에 사용한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은 남학생 131명(23.4%), 여학생 430명(76.6%)이며, 학년은 1학년이 269명(48.0%), 2학년이 202명(36.0%), 3학년이 72명(12.8%), 4학년이 18명(3.2%)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는 이미 설문지 작성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내용타당성을 검토하였지만,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CFA는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관측변수들의 특정 잠재변수들을 구성하는 관계에 초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측정모형에 속한다(배병렬, 2007).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신뢰도 그리고 집중타당도의 결과를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먼저 절대적합지수인 $\chi^2=587.634(df=224, p=.000)$, GFI=0.918(.9 이하 우수), RMSEA=0.054(.05 이하 우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증분적합지수인 TLI=0.958(.9 이상 우수), NFI=0.947(.9 이상 우수), CFI=0.966(.9 이상 우수), IFI=0.966(.9 이상 우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간명적합지수인 $\chi^2/자유도=2.623$ (3 이하 우수), AGFI=.0890(.8 이상 우수)로 나타났다. RMSEA가 임계치보다 약간 높지만, Steiger(1990)은 RMSEA가 0.10 이하이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0.05 이하이면 매우 잘 적합시키고, 0.01 이

하이먼 가장 좋은 적합도라고 했고, 다른 적합도 지수는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단일차원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각 변인의 신뢰도 지표인 Cronbach's alpha값이 .839이상으로 나타나 임계치인 0.7을 상회하므로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집중타당도, 판별 타당도, 그리고 법칙타당도를 검토해야 한다.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는 측정모형에 의해 평가할 수 있고, 법칙타당도는 구조모형에 의해 평가

할 수 있다(배병렬, 2007). 표준화계수값이 0.783 이상으로 임계치 0.7를 상회하고,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이 0.549 이상으로 나타나 임계치인 0.5를 상회하고,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이 0.783 이상으로 나타나 임계치인 0.7을 상회하기에 집중타당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따라서 측정항목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해당 변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표 2> 참고).

<표 2>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변인	항목	표준화계수	S.E.	t-Value	Cronbach's alpha	AVE	Composite Reliability
문제해결능력	PsC1*	0.817			.887	0.707	0.878
	PsC2	0.877	0.046	23.964			
	PsC3	0.858	0.047	23.352			
정보능력	IC1*	0.783			.902	0.706	0.878
	IC2	0.931	0.043	24.976			
	IC3	0.903	0.043	24.222			
기술능력	TC1*	0.838			.897	0.748	0.899
	TC2	0.903	0.04	27.229			
	TC3	0.856	0.041	25.067			
자원관리능력	RMC1*	0.884			.906	0.757	0.903
	RMC2	0.895	0.033	29.579			
	RMC3	0.846	0.034	26.694			
조직관리능력	OM1*	0.88			.902	0.741	0.896
	OM2	0.881	0.038	28.835			
	OM3	0.848	0.037	26.8			
진로효능감	CSe1*	0.888			.839	0.549	0.783
	CSe2	0.685	0.045	17.898			
	CSe3	0.831	0.042	23.053			
진로결과기대	OE1*	0.85			.894	0.637	0.840
	OE2	0.846	0.043	24.082			
	OE3	0.881	0.043	25.266			
진로준비행동	CPB1*	0.839			.881	0.581	0.806
	CPB2	0.855	0.048	22.529			
	CPB3	0.837	0.045	22.152			

Model Fit Indices: $\chi^2=587.634(df=224, p=.000)$, $\chi^2/df=2.623$ GFI=.918, AGFI=.890, NFI=.947, IFI=.966, TLI=.958, CFI=.966, RMSEA=.054, *Reference variables

다음으로 판별타당도는 두 구성개념간 각각의 VAE 제공근값이 두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값보다 상회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검토하는데, <표 3>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기술 능력과 조직관리능력이다. 이 두 변인의 상관관계 값인 0.849이 각 AVE 제공근값인 0.870과 0.861을 하회하고 있어 판별타당도는 크게 무리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종합하면,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표 3>에서 상관관계값이 0.9를 초과하지 않기에 변인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를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표 3>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변인	√AVE	상관관계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진로효능감	진로결과기대
문제해결능력	0.841	1						
정보능력	0.840	0.649	1					
기술능력	0.865	0.74	0.771	1				
자원관리능력	0.870	0.724	0.687	0.769	1			
조직관리능력	0.861	0.736	0.725	0.849	0.803	1		
진로효능감	0.741	0.573	0.617	0.585	0.626	0.676	1	
진로결과기대	0.798	0.534	0.501	0.514	0.504	0.603	0.617	1
진로준비행동	0.762	0.346	0.239	0.352	0.321	0.312	0.298	0.216

3. 가설 검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의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마찬가지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역시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절대적합지수인 $\chi^2=660.135(df=235 p=0.000)$, GFI=0.910(.9 이하 우수), RMSEA=0.057(.05 이하 우수)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로 TLI=..954 (.9 이상 우수), NFI=0.940(.9 이상 우수), CFI=.910 (.9 이상 우수), IFI=.961(.9 이상 우수)로 나타났다. 간명적합지수는 $\chi^2/자유도=2.809(3$ 이하 우수), AGFI=.885(.8 이상 우수)로 나타났다. Steiger(1990)은 RMSEA가 0.10 이하이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하기에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임계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되었기에 가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표 4>, <그림 2> 참고).

문제해결능력이 진로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1a)를 검정한 결과, 표준화계수 0.144, t값 1.98로 유의수준 5%(t값 1.96이상)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정보능력이 진로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1b)를 검정한 결과, 표준화계수 0.274, t값 4.142로 유의수준 1%(t값 2.58 이상)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기술능력이 진로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1c)를 검정한 결과, 표준화계수 -0.241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자원관리능력이 진로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1d)를 검정한 결과, 표준화계수 0.191,

t값 2.111로 유의수준 5%(t값 1.96 이상)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조직이해능력이 진로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1e)를 검정한 결과, 표준화계수 0.561, t값 4.945로 유의수준 1%(t값 2.58 이상)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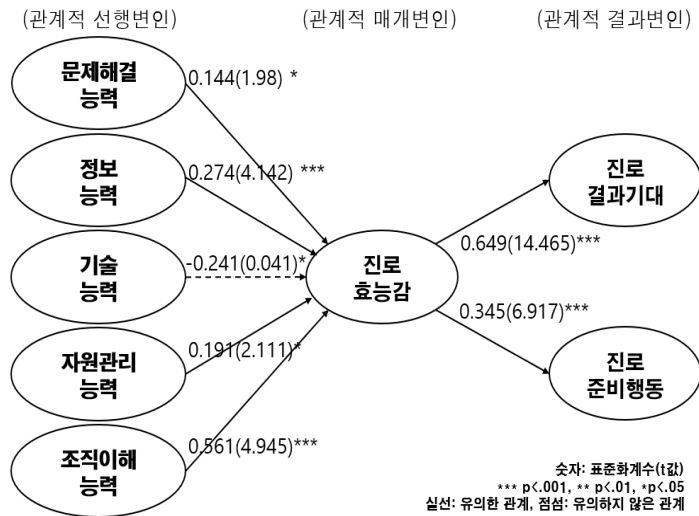
그리고 진로효능감이 진로결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2)를 검정한 결과,

표준화계수 0.649, t값 14.465로 유의수준 1%(t값 2.58이상)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진로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3)를 검정한 결과, 표준화계수 0.345, t값 6.917로 유의수준 1%(t값 2.58 이상)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4> 구조모형의 가설검정

가설: 경로	표준화계수	S.E.	t-Value	p-Value	결과
H1a 문제해결능력 → 진로효능감	0.144	0.073	1.98	0.048	채택
H1b 정보능력 → 진로효능감	0.274	0.066	4.142	***	채택
H1c 기술능력 → 진로효능감	-0.241	0.118	-2.043	0.041	기각
H1d 자원관리능력 → 진로효능감	0.191	0.09	2.111	0.035	채택
H1e 조직이해능력 → 진로효능감	0.561	0.113	4.945	***	채택
H2 진로효능감 → 진로결과기대	0.649	0.045	14.465	***	채택
H3 진로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0.345	0.05	6.917	***	채택

모형적합도: $\chi^2=660.135(df=235, p=.000)$, $\chi^2/df=2.809$, GFI=.910, AGFI=.885, NFI=.940, IFI=.961, TLI=.954, CFI=.961, RMSEA=.057,



<그림 2> 연구 결과

V. 결 론

최근 국가와 사회의 화두 중 하나가 취업이라고 할 수 있고, 대학 평가에서 취업률이 주요 지표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선호하는 직업군으로 공공기관은 늘 상위를 점하고 있다. 이 공공기관에서 NCS기반 능력 중심 채용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NCS직업기초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예정)자들이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과기대의 선행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사회인지진로이론과 자기효능감이론을 바탕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과기대의 선행요인으로 진로효능감으로 설정하고, 이 진로효능감의 선행요인으로 NCS직업기초능력군에서 업무처리 능력과 관련된 능력인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으로 설정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졸업예정자)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영향요인으로 진로효능감 요인을 확인하였다. 둘째, 업무처리 능력 중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은 진로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업무처리능력 중 기술능력은 진로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설 H1c가 지지되지 못했는데, 이는 먼저 덜 명확한 설문문항으로 인한 결과로 예측된다. NCS 홈페이지 제공하는 설문문항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지만, 설문 문항 중 하나인 “나는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의 원리 및 활용 절차

를 이행할 수 있다”에서 보듯이 ‘주어진 상황’에 대한 덜 명확하고 덜 구체적인 설문문항으로 설문대상자인 대학생의 설문 이해도 저하로 설문의 혼돈을 초래하여 가설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설문대상자인 대학생들이 ‘기술’의 의미를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오인 해석하여 원 설문의 의미를 왜곡 해석하여 설문에 응한 것이 아닌지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이에 NCS를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설문문항의 명확화와 정교화가 요구된다.

이에 상기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과기대에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순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업무능력처리능력군(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사회인지진로이론과 자기효능감을 통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업무능력처리능력군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과기대에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요인으로 진로효능감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과기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대학생들이 진로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의 학과차원의 행정지원과 대학생을 대면으로 만나는 교수자 차원의 멘토링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교과과목의 개설과 교수평가 지표 항목의 개발 등의 정책적 제안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과기대에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순으로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특강 프로그램 및 비교과과목을 상기의 영향 순으로 준비 및 진행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한계점으로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중점을 두었기에 진로준비행동이 실제 진로행동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실증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에 한계가 있기에 표본의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민정·박영민(2018),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관심도 분석: 의사소통능력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66(0), 35-58.
- 김봉환·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세환(2015), “NCS 기반 공정과 직무분석을 이용한 경력개발에 관한 실증적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아(2017),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생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정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비서학논총*, 26(1), 57-80.
- 김혜영(2015), “정보기술분야 NCS형 교과설계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개발모형을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5(4), 85-99.
- 박보경(2009), “고등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흥미,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윤희(2018), 진로 탐색 및 직업 선택, 시그마프레스.
- 배병렬(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링, 도서출판 청담.
- 서용수·최승영(2017), “지적분야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3(2), 33-46.
- 서용한·야부 토스하루(2017), “NCS 확산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커리어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6(2), 207-221.
- 성행남·조동환(2018), “NCS 정보능력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보시스템연구*, 27(4), 1-22.
- 성행남·조동환(2019), “대학생의 직장적응능력군이 전공흥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결과기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통물류연구*, 6(2), 67-80.
- 안재영·이찬주(2018), “직업계고 교원의 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연구”, *직업교육연구*, 37(2), 101-127.
- 윤덕원·우혜정·강봉준·김운호(2016),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 기반의 직군별 요구역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383-398.
- 이명화(2015), “공과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학효능감과 결과기대, 흥미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화·윤소정·허승희(2011), “대학의 직업기초능력 교육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0(4), 51-67.
- 이제경·김동일(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심리적 특성”, *상담학연구*, 5(4), 993-1016.
- 이진옥·김진영(2016), “NCS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4 년제 대학생들의 요구: IPA를 통한 사례 연구”, *직업교육연구*, 35(5), 75-96.
- 이창원(2017), “4차 산업혁명과 공공조직의 변화, 미래의 인재상”, *한국행정포럼*, 158, 9-16.

20. 임세영 · 김지영 · 박윤희 · 김우철 · 임민섭 · 우혜정(2018), “4년제 대학생의 NCS 직업기초능력 진단문항 개발: 자기개발능력, 조직이해능력, 자원관리능력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7(2), 1-18.
21. 장현철 · 이명화(2019), “블라인드 채용 시 방사선사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 수준 분석”,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13(1), 103-111.
22. 조선일보(2018), “고용 ‘량과 질 동반악화’… ‘단기알바·취포자만 늘어’, 정원석, 조귀동 기고, 2019.4.20. (입력 2018.11.14. 14: 54, 수정 2018.11.14. 14:58)
23. 주초롱 · 송경희 · 이계희(2018), “관광전공 고등학생의 NCS교육과정 만족도가 진로탐색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2(3), 55-67.
24. 중앙일보(2018), “韓 20대 실업률, 日 2배 넘어…주 원인은?”, 김지혜, 2019.4.20. (입력 2018.12.05. 12:34)
25. 최광열(2017), “직업기초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 및 IT계열 전문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6.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2016), “2016년도 직업기초능력 평가 대학 시범평가 실시 안내”, 2016.9.26.
27. “NCS 및 학습모듈 검색”,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2019년 4월 20일 접속.
28.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29. Bandura, A.(1985),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Prentice Hall.
30. Hackett, G. and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31.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and Black, W.(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5th ed), Prentice Hall.
32. Lent, R. W., Brown, S. D. and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33. Lent, R. W., Brown, S. D., Brenner, B., Chopra, S. B., Davis, T., Talleyrand, R. and Suthakaran, V.(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74-483.
34. Steiger, J. H.(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80.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NCS Task Processing Capability Group on Career Outcome Expec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ed on College Students—

Sung, Haengnam* · Cho, Donghwan**

As job market squeezes and more institutions have been requiring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based recruitment, the importance of NCS has been growing. Among the 10 domains of NCS, the most relevant one with task processing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iled is 'task processing capability group', which is becoming more important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task processing capability group on their career outcome expec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is study, we set up a process model to comprehend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task processing capability group on career outcome expec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task processing capability group(problem-solving capability, information capability,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y, organizational capability) positively influenced college students' career outcome expec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employment. However, the impact of technical capability on career outcome expect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not explain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task processing capability group of college students, not only university-level efforts, but also college and faculty's efforts should be accompanied. Other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Career Outcome Expecta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Self-efficacy, Task Processing Capability Group(Problem-solving capability, Information capability, Technical capability,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y, Organizational capabilit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9 Post-Doc Development program of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First author, Instruct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aena@gnu.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hcho@gntech.ac.kr